

Arts & Culture

monthly newspaper. August 2009 | Vol.43

8

PEOPLE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주역 **브래드 리틀**

한국기악 최고 스타들의 눈부신 앙상블
7인의 음악인들

FERNANDO BOTERO

페르난도 보테로

기획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공연

Musical 「*Notre Dame de paris*」

이태리 오리지널 뮤지컬

PINOCCHIO

일베노체오
Pinocchio - Il Grande Musical



www.arts&culture.com



나를 찾다, 삐노끼오에 숨다.



예술의 본고장 이태리 오리지널 뮤지컬 『일 삐노끼오 (PINOCCHIO)』

원색이 넘치는 조명, 이태리를 옮겨온 듯 리얼한 세트, 곳곳에 맴도는 아리아! C. 콜로디의 동화 〈삐노끼오의 모험〉 원작 스토리를 무대로 옮긴 뮤지컬 〈일 삐노끼오〉는 어린이만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하고 외면한다면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2003년 4월 이태리 밀라노의 페아프로 델라 루나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2010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청 공연을 앞두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추천으로 아시아권 최초로 한국 공연이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 잊힌 꿈과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성장통이 나무인형과 장중한 숲속 등, 아기자기 아름답고 스펙타클한 무대와 감각적인 음악으로 올 여름 뜨거운 감동으로 찾아온다.

“나는 다시 나무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적어도 나무는 자라니까...” 뽀노끼오

“아무도 이 세상에 쓸모 없이 태어나지 않아.” 달의 요정(투르키나)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운명을 거슬러~” 트리오



✓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나무인형 뽀노끼오

뮤지컬 『일 뽀노끼오』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장소, 또 주제들은 낯설
지도 이국적이지도 않다. 일하고, 관계
맺고, 사회 속에서 살아 가면서 때로 기쁘고 가끔 외롭고
그러면서 꿈과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삶의 요소들을 치밀한 구성으로 표현해 낸다.
하루의 일상이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마치듯, 인생이 탄생에
서 시작해 자연으로 돌아가 인간의 모습을 한 최초의 동화 로봇
이자 목각 인형이 뽀노끼오라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태권브이, 아톰, 슈퍼맨, 터미네이터, 로봇캅의 뿌리에는
뽀노끼오라는 반쪽 짜리 마음을 가진 목각인형이 있는 것.



뮤지컬 <일 뽀노끼오>와 소프라노 조수미와의 인연

뮤지컬 <일 뽀노끼오>는 2003년 4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페아프로 델라 루나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2010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창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유럽권을 벗어난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된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추천이 숨어 있다. 바로 로마에서 뮤지컬 <일 뽀노끼오>를 관람하고 감동한 그녀의 극찬 덕분에 브로드웨이의 본고장 뉴욕 초창 공연에 한 발 앞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 공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뮤지컬 <일 뽀노끼오> 공연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처음으로 펼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C. 콜로디의 원작소설 “뽀노끼오의 모험”을 바탕으로 오페라의 본고장답게 이탈리아 특유의 느낌이 돋보이는 음악과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감각적인 무대, 특수효과로 재창조된 뮤지컬 『일 뽀노끼오』는 기존 오페라와 뮤지컬 관객들 사이에서 마니아 층을 형성했으며, 연령을 초월하여 다양한 감성을 이끌어내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원작의 인물들과 내용을 충실히 담으며 시종일관, 즐거움과 감동, 때론 놀라움의 감성을 가득 전달하는 이 작품은 뽀노끼오가 좌충우돌하며 알아가는, 제페토가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길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한국적 정서와 잘 통하는 이탈리아의 칸초네, 라틴, 팝음악을 두루 사용한 이탈리아 아트워크의 대표주자 이 푸의 음악에 푹 빠지게 하며, 춤 역시 발레에서 비보이 댄스까지 관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감수성 깊은 음악과 댄스의 적절한 조화**는 뽀노

끼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극의 엔딩 시점에 최고조에 이르러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여 공연장을 나서는 관객의 마음에 잔잔한 파장을 간직하게 한다.

지난 반세기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고도 성장의 표본,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뽀노끼오는 어떻게 비춰질까? 빠른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과 외로움,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과 소통의 문제들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뽀노끼오는 어떻게 다가올까? 순간의 화려함이나 충분히 그럴 법한 남의 인생 이야기로 채워진 눈요기 위주의 뮤지컬이 아니기에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극장을 찾아도 좋은 뮤지컬, 매니아가 아니어도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또 보고 싶고 다시 듣고 싶은 뮤지컬, 어느 순간 가슴 먹먹해지던 뮤지컬로 기억되던 좋겠다는 바람이다. 작품의 완성도만큼 최고 수준의 극장이어야 하기에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뽀노끼오를 만나는 기쁨이 더 크다.

2009년 하반기 최고의 작품이 될 뮤지컬 『일 뽀노끼오』는 이탈리아 오리지널 캐스팅과 기술팀이 내한하여 8월 7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며 연이어 대점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다. 인생에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일들도 있다. 또,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뮤지컬 『일 뽀노끼오』에 숨어 나를 찾는 시간, 재미와 감동은 기본, 행복한 시간까지 욕심부려도 충분한 여름 밤이 될 것이다. 올 여름 뮤지컬 <일 뽀노끼오>를 외면한다면 당신의 코가 길어질 지도 모른다. Tel SMI 3461-0976

A&C